

대전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

오늘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시대 '활짝'

충청신문 / , 2009-09-13 오후 7:20:55

대전 지역 문화예술 진흥시대가 활짝 열렸다.

대전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박성호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문화예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에 설립되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행정체제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민간주도 세미나 및 토론회, 타시·도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간담회, 공청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지난 6월 5일 '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'가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반 위에서 창립하게 됐다.

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예술의 창작, 보급 활동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사업 등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

시는 문화재단 설립으로 정부공모사업 및 국비지원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프로젝트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.

또한 전문성 확보로 안정적이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가적 안목으로 새로운 요구와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 기부나 후원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시 관계자는 “문화재단 설립으로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, 창의성을 실현해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향후 재단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한 자치단체는 지난 1997년 경기도를 비롯해 8개 시·도가 설립됐다. 또 현재 추진중인 곳은 2개 지역으로 파악됐다.

/조찬구기자